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동성애 소재가

나타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임은희**

1. 서론 :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
2.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의한 동성애의 타자화 방식
 - 2-1. 연민의 시선과 배반의 서사, '이교도'로서의 성
 - 2-2. 혐오적 시선과 전복의 서사, '가부장제 회귀'의 도구적 성
 - 2-3. 공포의 시선과 추방의 서사, '괴물'로서의 성
3. 결론

국문요약

본고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소설에 나타난 동성애를 주목하는 것은 다문화 담론과 함께 동성애가 초점화되었다는 점이며, 성적 정체성이 '다름'을 인정한 커밍아웃된 소수주체인 동성애집단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다문화 시대에 법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라는 점에서 바디우가 개념화 한 '이방인'이나 '호모 사케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당대 다문화 담론의 철학적 기반이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학을 토대로 한다고 할 때 동성애라는 소수집단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다문화적 인식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더

* 이 논문은 2011년 신진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NRF-332-2011-1-A00116)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불어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방인으로서의 동성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의 저항적 관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성애 소재가 드러난 한국 단편소설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당대 한국사회에 팽배한 다문화적 인식인 ‘인정’을 통해 소수주체인 동성애자의 타자성을 확인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동성애자 아닌 성적 주체가 타자인 소수자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과정은 ‘연민, 혐오, 공포’의 시선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민/혐오, 공포=수용/거부라는 이분항적 시선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시선이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기반하여 ‘타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의 ‘거짓환상’이라는 저항적 시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 때문에 윤리적 이념은 추상적 보편성으로 전환하고 이는 곧 타자에 대한 폭력을 야기한다는 버틀러의 논의를 반영한다. 나르시시즘적 주체가 수행하는 판단과 타자를 인정하는 행위는 타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주체의 동일화 과정 일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초점화자의 동일성의 논리에 의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위계질서에 의한 배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소수자 동성애자는 ‘배반과 전복 그리고 추방’의 과정 속에서 ‘이교도, 가부장제 회귀로서의 도구화, 괴물로 타자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주제어: 동성애, 다문화적 인식, 타자성, 거짓환상, 연민, 공포, 혐오,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

1. 서론: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

본고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소설에 나타난 동성애를 주목하는 것은 다문화 담론과 함께 동성애가 초점화되었다는 점이며, 성적 정체성이 '다름'을 인정한 커밍아웃된 소수자 동성애집단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다문화 시대에 법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자'라는 점에서 바디우가 개념화 한 '이방인'이나 '호모사케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당대 다문화 담론의 철학적 기반이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학을 토대로 한다고 할 때 동성애라는 소수집단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다문화적 인식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더불어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방인'으로서의 동성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의 저항적 관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가 담론화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적 인식의 내적 모순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성애 소재는 그 이전의 작품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의 작품에 나타난 동성애 양상은 내적 의미의 은밀한 전략적 장치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¹⁾.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동성애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장편²⁾, 단편³⁾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였고, 게다가 실

1) 이성희,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동성애'고찰』, 『관악어문연구』 제30집, 2005, 12, 267~89쪽.

임은희, 『탈주하는 성, 한국현대소설:1910~20년대 소설의 동성애적 모티프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2010, 231~57쪽.

2)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심산, 『하이힐을 신은 남자』, 오정희, 『새』, 백민석, 『내가 사랑한 캔디』, 정정희, 『오렌지』, 이명량, 『꽃을 던지고 싶다』, 장정일, 『중국에서 온 편지』, 정지우, 『내 남자의 남자』, 배수아, 『에세이스트의 책상』, 권소연, 『쉬즈마

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작가가 직접 다룬 동성애 소재의 작품들도 다수 등장하였다⁴⁾. 여기에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소수주체인 동성애자’ 자체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성’을 포착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인물과 소수인 동성애자간의 관계,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이반과 레즈비언)간의 소통방식, 소통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 과정에서 도출된 동성애자의 심층적인 면까지 보여준다. 더구나 사랑의 소통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동성애라는 ‘낯선’ 감정을 ‘익숙한’ 감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틀림’이 아닌 ‘다름’의 방식이지만 이성애와 동일한 감정임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금기’된 감정을 ‘친숙함’으로 현현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적인 담론 하에 대두된 다문화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는 기존의 다문화적 갈등과는 전혀 상반된 지점에서 출발한다. 다문화적 담론이 대두된 것은 지구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 및 이주로 각종 사회문제와 인권침해 논란에서 비롯된다.

인, 장정일, 『구월의 이틀』 등등

- 3) 최윤, 『하나코는 없다』, 송경아, 『송어와 은어』, 한강, 『여수의 사랑』, 차현숙, 『나비, 봄을 만나다』, 성석제, 『첫사랑』, 김영하, 『거울에 관한 명상』, 이남희, 『플라스틱 섹스』, 『여자가 여자일 때』, 『어두운 열정』, 이응준, 『이교도의 풍경』, 전경린,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 마네킹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윤대녕, 『수사슴 기념물과 놀다』, 신경숙, 『딸기밭』, 박상우, 『붉은 달이 뜨는 풍경』, 조경란, 『나의 장미 빛 소파』, 윤대녕, 『흑백 텔레비전 꺼짐』, 강석경,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 김소진, 『달개비 꽃』, 하성란, 『푸른 수업의 첫 번째 아내』, 강영숙, 『밤의 수영장』, 정이현, 『무궁화』, 전운영, 『세 번째 유방』, 이나미, 『푸른 등불의 요코하마』, 이나미, 『빙화』, 권여선, 『나쁜 음자리표』, 임철우, 『나비길 황천 이야기 2』 등이 있다.
- 4) 2000년부터 한국 동성애자들의 문화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본격 동성애 문학 전문 웹사이트인 ‘게이문학닷컴’이 생겼다. 여기에는 동시대의 동성애자들의 삶과 욕망을 담은 작품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작품집으로 출판되었다. 정명안, 『핑크스카프』, 한중렬, 『마성의 게이』, 그 외 작품집이나 작품들로는 『남남상 열지사』, 『어느 게이 병사의 죽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나이 예순 넷』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배제와 차별의 잣대 때문에 갈등은 첨예화된다. 이는 처음부터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질서에 그 다수의 이권을 침해하는 소수인 이주민을 '다르다'라는 인식 하에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⁵⁾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공존은 타자인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대안의 메시지도 제시한다.⁶⁾

그러나, 동성애는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 '동일하다'고 인식했던 아니 의심치 않았던 절친, 남편, 오빠 등등 친밀한 관계가 어느날 갑자기 전혀 낯선 '이방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혈족, 친족, 지연, 학연을 형성하며 맺어온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느날 성적 정체성이 다른 동성애자라는 '낯선 이방인'을 어떻게 인정하며 소통해야 하는가? 라는 '충격적인 낯선 새로움'에서 출발한다.

성의 정전화 된 논리인 '이성에 결혼-생산'의 과정이라는 근대 질서 논리에 위배되는 위협한 축으로서의 동성애가 이성애와 동일한 감정의 표출방식으로 사랑을 행사하는 과정을 다뤘다는 점에서 당대 다문화에 내재된 '타자에 대한 인정'이라는 윤리의식을 내재화한 표출방식임을 규명해 낼 수 있다.

여기에는 다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경계선'을 '넘기' 위한 다문화적 인식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통 현재까지 다문화에 대한 논의들은 다문화적 체험을 다루고 있는 근현대 소설로서 국내

5)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6) 송현호, 『다문화 사회의 서사유형과 서사전력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44집, 현대소설학회, 2010, 171~200쪽.

7)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작가뿐만 아니라 재외한국인작가들의 소설까지 포함한 연구에 치중함
셈이다. 그리고 ‘타자’와 접목된 소수자에 대한 논의도 다문화적인 접근
에서 다수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다문화적 담론에 내재한
동성애라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하다.⁸⁾

고정된 주체개념에 도전한 후기구조주의를 포용한 다문화주의는 세
계가 하나의 단일한 전 지구적 체계가 되어감에 따라 소수민족의 문화
나 아주 이질적인 문화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거대한 문화
적 하모니를 추구하자는 긍정적인 이념으로 등장한다.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알
튀세르의 고정된 주체개념은 다양한 관계들에 의해 분열·해체되는 현
대의 인간존재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근대 사유 주체 개
념에 도전하여 인간주체도 다양한 인간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분열적이고 유목민적인 인간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경계
선 밖에 놓인 이방인들을 ‘하위주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그들의
유대가능성을 ‘집합성’의 개념으로 탐색했던 스피박은 타자성이라는 개
념을 주체화하는 탈식민주의의 정치철학⁹⁾을 펼친다. 바디우는 이들을

8) 다문화시대의 소설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학계에서도
현대소설연구회, 문예비평학회 등에서 다문화 관련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
다. 한국현대소설학회에서는 2008년 11월 22일에 <다문화주의와 한국 소설>이라는
특집으로 제3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정혜경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 김영찬
『경계를 넘는 문학들』, 김형규 『중국 조선족 소설과 소수민족주의의 확립』, 허명숙
『민족 정체성 서사로서 재일동포 한국어 소설』, 류보선 『다언어공동체와 연인들의
공동체』 등의 발표가 있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에서는 2009년에 2회에 걸쳐 <다
문화시대와 텍스트의 변모양상1>, <다문화시대와 텍스트의 변모양상2>이라는 특집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김명석, 『다문화시대 우리 소설의 역사 읽기』,
최강민 『1950,6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한국인과 미국인의 관계성』, 이덕화 『덕테
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광효환 『아시아 문화콘텐츠 모색 현황과 가능성』 등의
발표가 있다.)

‘사건의 자리’라 명명함으로써 탈경계의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파악하고 있다. 호미바바의 경우는 ‘양가성’ 개념을 통해 분열의 틈새에서 저항¹⁰⁾의 계기를 도출한다.

동성애-쾌락-소비-비정상(퀴어, 이반)으로 근대질서의 성적흐름을 배반하여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축의 성으로 간주되어 배제되었던 동성애는 이성애적 흐름에서 간과된 은밀한 흐름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유교중심이면서 단일민족임을 자부했던 한국에서의 성은 이성애만이 우위를 점유하였으며 동성애를 병적 징후로 타자화 시키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성애가 심리적·신체적 요인을 갖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욕구로 형성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라고 말한 왁스¹¹⁾나, 성은 권력에 의해 정의, 분류, 생산된다는 푸코의 견해¹²⁾를 고려할 때 전통의 성애를 거스르는 성적 소수자들인 동성애의 모반에는 탈식민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여지를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성에 있어 경계선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타이유의 한계경험과 위반, 깡길렘의 규준과 정상성이라는 중심개념¹³⁾ 그리고 이들의 이론이 사유의 지적배경이 되었던 푸코의 정상과 비정상성의 논의¹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면 동성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양성성을 인간의 본래적 속성으로 간주하여 성보다는 육체를 통해 성적 주체의 문제를 논했던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논의도 동성애의 의미를 보다 다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동성애는 ‘이방인’이나 ‘호모사

9)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박미선 옮김, 『포스트 식민 이성비판 : 사라져가는 현재의 역사를 위하여』, 갈무리, 2005.

10) 호미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사, 2002, 15-6쪽.

11) 제프리 왁스, 서동진 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7.

12) 미셸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7, 8쪽.

13) 조르주 깡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14) 미셸푸코,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케르'의 개념에 포함되어 탈경계의 주체로서의 저항적 의미를 내포한 긍정적 가치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반영하여 퀴어비평¹⁵⁾은 성의 영역에 작용하는 본질주의적 개념을 해체하고 기존의 성담론을 전복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¹⁶⁾

본고가 좀 더 주목하는 지점은 특히 이 당시 서구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도입된 이 인정과 배려의 정치학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타자이자 소수인 그들을 인정해주는 정치철학을 담았다. 그러한 인정의 정치학을 내재한 다문화적 인식에는 '누가', '어떻게'라는 문제의식이 배제되어 있다. 소수자인 그들을 인정하는 다수자의 논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물음에 다문화가 주창하는 타자에 대한 인정, 즉 타자에 대한 관용이 '거짓'이라는 지젝의 저항적 시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안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거짓관용'이 자본의 전지구화의 체계를 고착·유지시키는 다국적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라고 반박한 지젝의 관점¹⁷⁾은 다문화의 이론과 더불어 작품화된 동성애 소재의 작품을 통해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수자 동성애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인식에 내재하는 시선이 어떤 양상으로 나

15) 동성애는 게이나 레즈비언을 통틀어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위해 퀴어란 용어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퀴어적 관점에서의 비평이다.

16)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성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17) 지젝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여성들이 할례를 받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베일 착용을 강요당하거나 그로 인해 명예살인을 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관용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들의 가치를 타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젝이 다문화주의자들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유럽 중심적 개념을 타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며 이것은 '거짓관용'이며 다국적 기업의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Myers Tony,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에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5. 20~30쪽.

타나는지를 규명하여, 현재 다문화정책 내지는 다문화적 인식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추출할 수 있다.

다문화적 인식이 동일성에 기인한 타자에 대한 인정과 배려일 때 타자를 인정하는 주체의 나르시시즘적 환상 때문에 윤리적 이념은 추상적 보편성으로 전환하고 이는 곧 타자에 대한 폭력을 야기한다는 버틀러의 논의를 환기시킨다. 나르시시즘적 주체가 수행하는 판단과 타자를 인정하는 행위는 타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주체의 동일화 과정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말한다.¹⁸⁾ 2000년대 전후 다문화의 이론과 더불어 작품화된 동성애 소재의 작품¹⁹⁾을 통해 소수자 동성애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텍스트의 서사방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텍스트를 통해 ‘누가 말하는가’와 ‘누가 보는가’를 구별하는 문제²⁰⁾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에 나타난 다수가 소수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과정에는 ‘나르시시즘 주체의 시선’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민, 혐오, 공포’의 시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타자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분열적 시선을 담지한다. 이 논의는 다

18) 임은희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도서출판 여이연, 2006. 19~30쪽.

19) 최윤, 『하나코는 없다』, 이웅준, 『이교도의 풍경』, 전경린,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 마네킹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신경숙, 『딸기밭』, 박상우, 『붉은 달이 뜨는 풍경』, 강석경,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 하성란,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송경아, 『송어와 은어』는 동성애자 아닌 다수와 동성애자간의 소통방식을 중심 서사로 하고 있다. 이 시기 ‘동성애’ 논의는 실제 동성애자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동성애, 동성애자(레즈비언과 이반)간의 소통방식을 살펴야 좀 더 면밀히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면상 차후 논의에서 밝힐 것이며, 우선 여기에서는 작가(동성애자가 아닌)에 의해 형상화된 ‘동성애’ 작품 가운데 특히 다수 즉 동성애자 아닌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동성애자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0) 제라르 주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주네뜨는 하나의 서사체에서 서술의 주체와 스토리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누가 보는가’, ‘누가 말하는가’를 구별하였다.

문화 사회에서 다수자인 주체와 소수자인 타자간의 진정한 소통방식을 되묻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의한 동성애의 타자화 방식

2-1. 연민의 시선과 배반의 서사, '이교도'로서의 성

이응준의 『이교도의 풍경』²¹⁾과 전경린의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 마네킹 헤кто르와 안드로마케』²²⁾에는 배반한 타자의 행위가 서사화 되면서 '연민'의 시선을 통해 동성애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납득할 수 없이 떠난 절친, 배신한 첫사랑 애인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배반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초점화자가 배반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낮선’미지의 예외적인 ‘이방인’으로 맞닥뜨린다.

전경린의 『다섯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마네킹 헤кто르와 안드로마케』에는 초점화자인 금주가 갑자기 배신한 첫사랑 이한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지만 설렘보다는 “낮익지만 낮선” 이한과 맞닥뜨린다. 첫사랑 이한은 여고생 때 기습적으로 당했던 역겨운 키스 때문에 낭패감과 환멸에 빠져있는 금주에게 “청신한 기포같은” 키스의 표상을 남겼던 인물이다. “딱딱하고 눅눅하고 참을 수 없도록 불결한 얼

21) 이응준, 『이교도의 풍경』, 『내 여자 친구의 장례식』, 문학동네, 1999, 39~75쪽. 이후 인용문은 쪽만 표시할 것임.

22) 전경린,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 마네킹 헤кто르와 안드로마케』, 『물의 정거장』, 문학동네, 2003, 43~64쪽. 이후 인용문은 쪽만 표시할 것임.

룩”을 상쇄할 키스를 남긴 그날 이후 그는 “납득할 수 없는 표정으로” 떨어져 갔고 소식도 없이 입대해 버렸다.

이한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해 금주는 관성처럼 결혼했고, 지리멸렬하게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생활을 했다. 그녀는 결혼 10년이 지났음에도 ‘키스’는 트라우마가 되어 남편과 한 번을 하지 못했다.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돌연 끝장내고 연주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다는 첫사랑 이한을 만나러 간다. “정말 우리 왜 그렇게 헤어졌을까. 그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식어버렸을까……”라는 평생동안 “우환처럼 계속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이다.

금주는 여전히 독신인 이한을 ‘설렘’과 ‘기대감’으로 만난다. 10년 전 배신했던 이한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금주가 맞닥뜨린 이한은 여전히 변성기를 넘어서지 못한 내향적인 음성에 친숙함→ “긴장하지 않는 편안한 모습”에 고통스러움→ 룸메이트가 남기고 간 ‘남자 마네킹’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너무 화려한 특이한 옷”을 소장한 “뒤편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설었다. 더구나 10년 전 ‘나와의 사랑을 기만했던 이한이 현재 떠난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배신행위에 분노가 있다. 그러나, 이한이 사랑한 룸메이트가 동성연인임을 안 금주는 분노에서 연민의 시선으로 전이된다.

“여기 누가 왔는지 알면 금주 넌 무척 놀랄거야.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말이야, 유경이 함께 왔어. 비가 계속 내렸지. 비가 계속 내리는데 우리 둘 다 처음으로 동시에 양복을 입고 만났어. 마치 결혼하려는 부부같았어. 유경이 너무 아름답더군.”(59쪽)

이상에서처럼 이한이 사랑하는 유경이 ‘남자’라는 고백을 듣고 금주는 ‘당황’하지만, 동성연인인 유경을 사랑하는 이한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이한을 사랑했지만 배신당한 연주의 고통스러운 사랑과 동일하다는 타자성의 확인을 통해 ‘연민’의 시선으로 전이된다.

“일생 일대의 용기를 내어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한의 고백에 연주는 “좋았겠다. 그런데 왜 몸 버린 사람처럼 구석에 쓰러져 있었니?”라며 위로를 던진다. 그러자 “……모르겠어. 나를 내던져버리고 싶어. 내가 유경을 망치는 거 같아.”라며 이한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자인 유경을 더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다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연약하고 신선”해 보인다. 이한과는 달리 고전적인 미남자이며 고독하고 권위적인 타입인 유경에게 “웃고 수줍어하는” 이한을 보며 연주는 자신이 “여자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것에 대해 이질감과 감탄을 동시에” 느낀다. 이한의 낯선 타자성이 동일하게 연주 자신 안에서도 공존한다는 체득된 깨달음을 통해 “알아……이젠 알거 같아. 전부……”라고 끌어안는다. 이한의 동성애에서 발견된 타자성이 연주 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상호소통 안에서 ‘인정’의 과정을 담고 있다. 금주는 이한을 “여동생을 결혼시키는 언니”뎀이 되어 “이한이 유경을 사랑하는 것보다 유경이 더 많이 이한을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63쪽)을 가진다. 남성의 모습을 지녔지만 동일한 젠더성을 공유한 인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연민의 시선으로 동성애자인 이한을 인정하는 연주의 타자성에 대한 인정은 진정한 관용일까? 이것은 금주가 이한이 동성애자라는 타자성을 확인하며 위무하는 과정을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에 내재된 균열지점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연주가 이한을 향해 “넌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구나”라며 연민과 고통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한을 향해 “두렵지 않니?”라고 되묻는다. 이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연주의 균열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첫사랑 이한으로부터의 트라우마에 해방된다는 자기 위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성애에 기반한 사회질서를 ‘정상적인 행위로 전제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한의 사랑을 두려움으로 간주한다. 이는 이한이 자신의 동성애를 규정하는 말을 되뇌이는 ‘연주’의 모습을 통해 입증된다. 이한은 “우리의 감정엔 그런 권위가 없어. 그냥 예외적인 감정”일 뿐이야. 그리고 “사랑하는지, 미안해하는지, 열등감에 빠져있는지, 그리워하는지……” 잘 모른다고 자신의 동성애를 규정한다.

금주는 새벽2시 이한의 집을 나오면서 침실방문에 놓인 “팔 없는 두 목조 마네킹이 작별을 앞두고 차오르는 슬픔을 억제하며 서로 기대 채 얼굴을 붙이고 있는 그림”인 〈헥토르와 안드로마케〉를 보며 ‘다섯번째 질서’라고 믿었던 인디오의 말을 되뇌이지만, 이한이 밝힌 동성애의 의미를 환청처럼 떠올린다.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 속으로 잠적한 것 같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흐름이 박탈된 광물질의 세계로. 금주는 포개어져 잠든 두 남자를 생각했다. 사랑하는지 미안해하는지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그리워하는지 모른다는 남자들의 잠. 그리고 팔 없는 목조 마네킹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인디오의 한 부족은 이 세계를 다섯 번째의 질서로 믿었다. 금주는 ‘다섯번째의 질서’라고 중얼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혼수상태의 거리를 힘겹게 끌고 다섯 번째 세계와 여섯 번째 세계 사이의 틈 속으로 빨려드는 기분이었다. (64쪽)

연주에게 동성애는 근대의 위계질서에 위배된 규정될 수 없는 “다섯 번째 세계와 여섯 번째 세계 사이의 틈”에 위치한 “흐름이 박탈된” 타자적 성이다. 따라서 우월한 이성애를 하지 못하는 열등한 동성애자인 이한의 사랑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금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연민의 균열지점에는 타자인 동성애를 공존의 개념보다는 근대질서라는 동일자의 시선에 내재한 허위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응준의 『이교도의 풍경』 또한 초점화자인 ‘나’가 절친인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며 균열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나는 절친인 구문모의 갑작스러운 음독자살에 아연실색한다. 그의 행위는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의 배신행위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기 전까지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희망”이란 미래를 같이 꿈꿨던 “불 쫓 안 불 쫓 다 보고” 지냈던 절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는 구문모의 인격에 “주눅들어” 있을 정도로 존경했고, 차라리 “너도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리기를 내심 바랄 정도” 였다. 그러나 절대 “타인에게 거세당할 위인”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친구였다. 심지어는 그가 이혼을 했을 때도 “겉으로는 놀라는 척”했지만 “당연한 귀결”로 생각했다. “민중이라는 추상은 사랑해도, 아내라는 엄연한 존재를 사랑할 순 없는 괴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절친이지만 훌륭한 인격에 존경까지 했던 ‘나’는 “옥해(獄海)에 있는 주선욱에게 소포를 전달”해 달라는 구문모의 마지막 유서를 받는다. 그의 배신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 유서마저도 외면하고 싶었지만 ‘나’가 맡았던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급격한 하락으로 “진정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구문모의 지적이 떠오르며 자괴감이 일어난다.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나’인데 죽음으로 세상을 외면한 구문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기도 품은 채 옥해(獄海)에 있는 주선욱을 찾아간다.

‘나’는 ‘옥해(獄海)’라는 “감옥의 바다”에서 꿈에서조차 전혀 상상조차 해 보지 못했던 낯선 이방인인 ‘구문모’의 또 다른 모습과 맞닥뜨린다. 동성애자인 구문모의 과거를 알게 된 ‘나’는 “더럽고 정나미가 떨어진” 충격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구문모가 남긴 에세이 형식의 유서 안에 “고래 한 마리가 거기에 있다. 숨을 헐떡이며 육지로 올라오려는 애처러운 표

정의 낙타가 그리워 사막을 가는 무모한 고래의 사랑”(74쪽)의 내용을 새긴 판화원판을 보며 구문모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져 연민의 시선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문모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다”라며 그와 주선옥의 동성애를 인정한다.

이 엄연한 사랑을 나는 무어라 부를까. 누가 그들의 사랑을 고래이고 낙타에게 하였는가. 나는 숨이 막혀와, 열차의 좁은 통로를 비틀거리며 걸아가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외치다 죽은 자들만이 모든 의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 쓰러진 자들의 고통에도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우리가 그를 얼마나 오래도록 독방에 수감하고 있었는가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74~75쪽)

‘나는 구문모의 동성애를 “고래이고 낙타에게”하는 “독방에 수감”되는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간주한다. 또한 그들의 사랑을 “고독”속에 방치해 둔 ‘나’에 대한 반성이 “우리”로 확장되면서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타자에 대한 이해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나’가 구문모의 동성애를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에는 “무모한 “낙타와 고래”사랑으로 옥해에서의 그의 사랑은 단지 “하얗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있다. 그들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는 화자의 동일성의 논리에 의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위계질서에 의한 배제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연민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형상화된 동성애는 ‘이교도’의 ‘풍경’처럼 무균적 타자²³⁾이기에 인정될 뿐이다.

수잔손탁은 『타인의 고통』에서 인간이 타자의 고통스러운 장면(즉 전쟁, 재난, 등등)을 보며 연민의 시선을 보이는데, 이 ‘연민’에는 자신을 타자로부터 분리시키며 안도감을 얻는 허위적인 감정을 담고 있음을 밝

23)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08. 20~60쪽.

히고 있다. 이러한 연민은 타자의 고통을 변화시킬 행동을 드러내기보다는 주체의 자기보존을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²⁴⁾ ‘연민’의 시선을 통해 소수자 동성애자는 진정한 인정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관망자’의 시선에서 이방인이라는 타자성을 거듭할 뿐이다.

2-2. 혐오적 시선과 전복의 서사, ‘가부장제 회귀’의 도구적 성

신경숙의 『딸기밭』²⁵⁾과 강석경의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²⁶⁾에서는 동성애가 양성애자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으며 동성애의 체험이 ‘가부장제’를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 그려지고 있다.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에 맞서기 위해 ‘금지된’ 욕망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신한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주체는 ‘금지된 욕망을 동성애로 간주하고, 결국은 그 욕망을 벗어나려는 혐오적 감정이 주된 내면적 정조를 이루고 있다.

신경숙의 『딸기밭』에서는 35세의 ‘나’가 초점화자가 되어 23세 때 만났던 동성애자 ‘유’와 ‘그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 회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나는 늘 부재를 빈번하게 했던 결코 가정에서의 ‘아버지’ 구실을 충실히 하지 못한 아버지이지만. 그런 아버지가 영원히 집을 나갔을 때 “새로움도, 다른 경계선도, 뭔가 중심이 될 만한 이정표도” 없는 “결핍을 안은 채 덧없음”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무기력한 ‘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채로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현실을 초월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24) 수잔 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25) 신경숙, 『딸기밭』 『딸기밭』, 문학과 지성사, 2000, 37-85쪽. 이후 작품은 쪽만 기입하겠습니다.

26) 강석경,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 『2001년 제8회 21세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도서출판 ISU, 21-48쪽. 이후 작품은 쪽만 기입하겠습니다.

되고 그 전복 대상은 ‘아버지’였다. 가정 안에서 부재하지만 그림자처럼 자신을 억압하는 ‘아버지’를 전복하기 위해 투신했던 ‘나’가 바로 23세 때의 ‘나’인 것이다.

23세때의 ‘나’는 ‘처녀’로 명명되고 ‘처녀’가 ‘아버지’를 전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금기된 것’들 즉 ‘나’의 ‘부재한 아버지’처럼 실체감은 없지만 억압적인 힘을 지닌 대상이다. 첫 번째는 늘 “흰 고무신”을 신었던 아버지처럼 “흰 고무신”을 신은 인물로 “범죄자형”이라는 금지의 영역인 혐악한 얼굴을 지닌 인물이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보지 않는 공포의 대상을 정복한 ‘처녀’는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마저 얻는다. 그러나, ‘처녀’는 전복해야 할 아버지인 ‘그 남자’가 “안정”을 찾아가며 ‘처녀’의 욕망을 채워지기 위해 “점점 야위어” 가자 ‘처녀’는 공허해지기 시작한다. 오히려 그 ‘처녀’는 자신의 공허함을 없애기 위한 욕망의 도구가 된 ‘그 남자’를 욕망의 도구로 가학과 공격을 통해 채워가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부정하고 거역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초월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시된 자신이 두 번째로 선택한 전복의 대상은 동성인 ‘유’이다. 동성이지만 모든 것이 충족한 주체로서의 여성인 ‘유’를 통해 ‘아버지’를 초월하고자 한다. ‘유’와의 동성애는 35세인 ‘나’가 “망각”하고 싶은 욕망과 미네소타주의 외딴 개울에서 사망한 ‘유’를 기억하고자 하는 유의 엄마의 편지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시선이 교차되면서 ‘처녀’의 동성애가 그려진다. 그것은 ‘처녀’가 동성인 ‘유’를 동경으로 욕망하는 23세의 시선과 35세인 ‘나’가 ‘유’와 동성애를 나누는 ‘처녀’를 혐오하는 시선이 교차하면서 분열적인 시선을 나타낸다.

‘유’는 이름처럼 “비애란 없다. 고통이란 없다. 결핍도 없다. 불가능도

없”는 모든 것이 있는 여자이다. “딸기밭”에 같이 간 ‘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아지는 시선”을 받았고, “화사하고” “아름다웠고” “고급스러운” “마치 누군가로부터 유를 찬미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유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경이로움”마저 지닌 여성이다. ‘아버지’와 동일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유’이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억압이 없는 장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딸기밭”에서의 ‘발육이 조화롭고 비틀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그녀와의 에로틱한 사랑은 “나직하다. 평화롭다. 적의가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억압적 현실과는 전혀 다른 동등한 관계의 체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유의 “부드럽고 능란하고 감미롭고 완벽함”에 “어떠한 찌꺼기도, 옆치락 뒤편치락거리는 욕망 속으로 모든 것이 빠져 들어간다. 옅은 땀냄새도 딸기를 키운 흙냄새도 그 남자와의 행위 뒤에 남겨지던 고독까지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유’와의 다른 사랑의 방식을 통해 완벽하게 ‘아버지’로 상징되는 억압의 세계를 전복했다고 23세의 처녀는 생각했지만 그런 ‘처녀’가 사랑한 ‘유’는 또 다른 ‘아버지’의 욕망을 모방한 혐오할 만한 ‘살인적 행위’라는 것이다.

처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가 지니는 관능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살의였다는 것을 유가 지닌 것을 훼손시켜 더럽혀 놓고 싶은 깊은 살의였다는 것을 처녀는 몰랐다. (81쪽)

35세인 ‘나’가 초점화 한 “딸기밭”에 들어간 23세의 ‘처녀’는 “훑쳐보는 젊은 남자의 눈”으로 ‘유’를 욕망하였고, 그것은 “그 남자가 있는 야산의 창고를 찾아가기 전”의 ‘처녀’의 눈과 동일하였다. ‘처녀’에게 ‘유’는 정복할 대상이었고 유희의 도구였다. “딸기밭”에서 금지된 성인 동성애를 통해 ‘아버지’질서를 전복했다고 간주한 ‘처녀’의 행위는 ‘아버지’의 법에 순

응하기 위해 동성애를 도구화하였고, 가부장제에 회귀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딸기밭에서 “돌연 유가 처녀를 밀어젖힌다. “누워!” 돌연 유가 명령한다. 단호하다. 지금까지의 무저항은 “누워!” 그 명령어를 수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듯” 이에 ‘처녀’는 체념하듯 “눈을 감아버린다” 그리고, ‘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된다.

딸기밭에서 돌아온 후 나는 금지된 것들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생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내가 분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리라는 것도, 내 인생에 그 남자와 유를 통과시킴으로서 나의 욕망은 끝에 다다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망각의 일만 남아있었을 뿐. 지금으로서는 그 옛날 금지된 것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치달던 처녀가 나였는지조차 희미할 뿐. (85쪽)

10년이 지난 지금 35세가 된 ‘나’를 공연장에서 봤다는 ‘그 남자’는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다. 35세인 ‘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망각으로 훼손되기 전”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23세 때 만난 ‘유’와의 사랑은 “금지된 것들”로 치부되어 그 근처조차 가지 않는 ‘혐오’적인 행위로서 “망각의 일”로 치부한다. ‘나’에게 ‘아버지’질서의 폭력적 억압을 전복하고자 하는 금기시된 욕망의 발현인 동성애는 “내가 분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로서 인정하지만, 내 몸 속에 떨어져 나가는 배설물처럼 ‘더러움’이라는 혐오적인 시선²⁷⁾으로 균열적 시선을 드러낸다. 이는 레즈비언 관계에서 ‘세계의 틈’이나 ‘세계의 분열’과 연결되면서 거기에 함몰된 존재들의 비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로 기능하는 그래서 이성애를 강화시키는 역할²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다른 무엇

27) 박주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 크리스테바의 어머니의 몸』, 『여성의 몸: 시각쟁점 역사』, 창비, 2005, 70-93쪽.

을 위한 도구로 기능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질서에 회귀하거나 강화시키는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강석경의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에서의 주인공 ‘관’을 통해서도 ‘동성애’는 ‘가부장제로 회귀’하기 위한 도구적 성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 살아왔던 ‘관’이 “결혼제도 같은 건 없어져야 해. 난 가부장이 되고 싶지 않아.”라는 의지에 따라 전복하고자 하는 행위가 중심서사이다. 우선 제도나 기존질서의 전복을 위해 선택한 것은 “방기”였다. ‘관’이 자신을 철저히 “맹목적이며 무모한”행동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철저히 부정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IA의 비뇨기과 ‘닥터 박’과의 동성애이다. “동화될 수 없는 이방의 세계에” “일탈의 꿈”으로 도구화 한 성이 동성애이다. 그러나 그는 예술을 돈으로 사겠다고 “끈적끈적하게 제의”해오는 동성애자 ‘닥터박’을 속물적인 인물로 ‘혐오’하며 “금지된 사랑”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박’을 정면에 대고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자기 안의 또 다른 성인 동성애를 인정하지만, 닥터박을 “끈적끈적”한 속물적 인간으로 간주하며 혐오적 시선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거부이다. “급진적 여성 해방주의자”를 자처하며 자유분방한 남자관계를 맺었던 ‘O’가 ‘임신’을 이유로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들이대는 것에도 혐오감을 느낀다. 종족보존을 위해 도구화된 결혼 제도에 대한 거부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 영혼이 통하는 여성인 재연에게도 “근친의 감정”이 느껴져 결혼을 거부한다. 비록 남성인 ‘관’이지만 오히려 여성인 재연에게 “근친”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28) 김미현, 『1990년대 레즈비언 소설에 나타난 몸』, 『한국의 일상 문화와 몸』, 함인회 외 지음, 200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61~8쪽.

부인하고 타협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근대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로 상징되는 억압된 것들로부터 전복을 꾀했던 '관'이 안식을 얻기 위해 방문한 제주도 바닷가에서 방생하러 몰려온 사람들로 "아수라장"된 현실에 혐오감만 느낄 뿐이다. '관'이 가족/ 독신, 세속/ 신성, 속박/ 자유, 일상/여행의 분열적 지점에서 택한 '경주'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아득한 환영처럼 떠오른 것은 "생식기가 거세된 관의 시신"이다. 결국 가부장제에서 거세된 '관'은 "시신"이라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현현된다. 이는 인간의 실존을 구속하는 근원적인 뿌리를 뛰어넘어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예술가의 욕망²⁹⁾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성애 자로서의 '관'은 '아버지'의 법이나 질서로부터 거부된 '시체'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시체'는 더 이상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것으로 그로부터 거부된 어떤 것이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혐오적인 것이다.³⁰⁾

양성애자에 의해 체득된 동성애는 내 몸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하는 '배설물'처럼 거세해야 하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상된다. 결국 가부장제 질서에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 '동성애'는 도구화 되는 성으로 타자화를 거듭할 뿐이다.

29) 백지연, 『작가론-강석경, 천상을 꿈꾸는 유목민의 글쓰기』, 『2004년 『21세기 문학작품상』 수상작품집』, 도서출판 ISU, 2004, 13~4쪽.

30)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3~10쪽.

2-3. 공포의 시선과 추방의 서사, '괴물'로서의 성

하성란의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³¹⁾에서는 '아내'라는 여성 화자에 의해 남편인 제이슨의 동성애는 기괴한 공포스러운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는 '권태로운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조건이 좋은 '제이슨'과 결혼한다. 3개월 만에 결혼한 '나'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것은 뉴질랜드에서 학교에 다니는 '제이슨'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만남 이후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를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제이슨'을 "신뢰"했던 것은 여성을 성욕이나 탐닉의 대상으로 "어두운 카페로 데려가지 못해 안달하"는 여느 남자와 다른 "신사적이며 고루한" 행동을 지녔다는 점이다. 또한 부유한 집안의 능력자라는 점이다. "서른 두 살의 너무 많은" 내 나이에 쫓겨 세 살 연하인 '제이슨'과 순식간에 진행된 결혼이었다.

결혼 이후 약자인 '나'를 통해 초점화되는 '제이슨'은 생계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고, 모든 학비와 풍족한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송금 받는 무능력한 인물이다. 그의 방은 침실에서 뚝 떨어진 복도 맨 끝에 있었는데 그는 늘 그 방에 틀어 박혀 있었다, 그는 내게 "다 내 맘대로 해도 좋지 만 단 하나 ……자신의 방에는 오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계로 네 살아래인 학교 후배 찡과 절친이었으며, 우리는 "둘만 지내는 날보다 찡과 셋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날, 새벽 '나'는 제이슨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젖혔을 때 '찡과 제이슨이 동성애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맞닥뜨린

31) 하성란,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창작과 비평사, 2002, 38-61쪽. 이후 인용할 쪽만 표시할 것임.

다. 그동안 ‘제이슨’을 향해 품었던 낯선 의문과 엄습했던 공포의 원인이 바로 ‘동성애’였던 것이다. ‘제이슨’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준다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제이슨’의 비밀을 알아버린 ‘나’는 혼수로 들고 간 오동나무로 만든 장에 갇히게 된다. 비밀을 안 ‘나’가 한국으로 가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그들’의 위협과 “나이프를 장롱에 던지며” 위협하는 ‘제이슨’의 공포스러운 행동에 ‘나’는 실신한다.

그러나, 장롱 속에 갇힌 채 ‘나’는 ‘챙’이 울먹이며 ‘제이슨’을 향한 “난 널 사랑해.”라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 소리를 듣고 “공포 보다는 허기”졌다. 이젠 그들의 동성애에 대한 공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나’의 타자성을 확인하는 기제가 된다. 며칠을 장롱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갈증과 피곤으로 실신한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는 안간힘을 다해 그곳을 도망 나왔다.

‘뉴질랜드 교포이고 부자이며 매너가 반듯’한 이중얼굴을 지닌 ‘제이슨’은 프랑스의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괴물 ‘블루비어드(푸른수염)³²⁾로 대치된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나’로 대치됨으로써 동성애란 괴물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인 것이다. 그 괴물들은 끔찍한 공포를 일으키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챙이 울먹이며 제이슨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공포를 일으키는 괴물이 바로 ‘나와 친밀한 것’을 지녔다는 것을

32) <푸른수염>의 동화에서는 매너 있고 부를 많이 지닌 블루비어드는 좋은 신랑감으로 소문나 여러번 결혼을 한다. 그러나 연이어 그의 아내가 죽는다. 그는 여행을 떠나며 재혼한 부인에게 성 안의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며 모든 방 가운데 한 방만을 열지 말라 부탁한다. 그러나, 그 방의 궁금함을 견디지 못한 부인들은 그 방문을 열고 그 방 안에서 죽은 전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전 부인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다.

깨닫는다. 순간 ‘나’는 저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를 되뇌인다. ‘나’가 그의 방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우리 결혼생활은 지속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괴물’로 표상된 저들의 야만성은 사라진다. 오히려 저들을 공포스럽게 했던 ‘야만성’이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타자성의 확인이다. 신성한 결혼을 도피의 수단으로,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편안함을 위해 수단화했던 ‘나’는 제이슨과 챙이라는 괴물들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한 야만성에 대한 자책이다.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해, 그것을 빌미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결혼’을 수단화한 ‘제이슨’이나 경제적 안위를 위해 결혼을 택한 ‘나’나 공포를 일으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동일하다는 인식에 이른다.

서울로 돌아온 얼마 후 날 찾아온 제이슨의 부모가 “아직 그 버릇을 고치치 못했다”며 제이슨을 질책하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라는 타자적인 성은 여전히 근대질서의 동일성의 잣대에 의해 “버릇”으로 간주하며 고쳐서 질서 내로 편입해야 하는 잘못된 성으로 인식된다. “제이슨은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다. 그의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언급처럼 동성애는 강요와 억압에 의해 ‘동일자’의 닳은 모습이 될 때까지 길들여야 하는 ‘괴물’로서 타자화된다.

최윤, 『하나코는 없다』³³⁾, 송경아, 『송어와 은어』³⁴⁾ 박상우의 『붉은 달이 뜨는 풍경』³⁵⁾은 남성에 의해 레즈비언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다.

33) 최윤 『하나코는 없다』, 『1994년 한국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4. 11~41쪽. 이후 인용문은 쪽만 표시할 것임.

34) 송경아, 『송어와 은어』, 『엘리베이터』, 문학동네, 1998. 138~226쪽. 이후 인용문은 쪽만 표시할 것임.

35) 박상우, 『붉은 달이 뜨는 풍경』, 『21세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이수, 2000. 85~118쪽. 이후 인용문은 쪽만 표시할 것임.

이 작품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남성적 시선에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포’를 자아내는 ‘비밀’스러운 행위로 담겨있다.

송경아, 『송어와 은어』에서는 ‘내가 공장 부지를 둘러보라는 숙부의 부탁으로 낯선 부영시로 가게된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시냇물’이라는 카페에서 ‘송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들의 사랑인 동성애를 듣게 된다. ‘나’를 통해 부영(浮影)이라는 도시에서 들은 ‘동성애’는 그 공간의 이름처럼 ‘안개가 자주 끼는 도시답게 비밀스럽고 좀처럼 진실을 알 수 없는 희뿌연한 무엇’으로 “신기루나 환영”처럼 그려진다. 부영시는 유독 이방인에게 철저히 폐쇄적이다. 더구나 ‘시냇물’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그것은 거짓 선이요 당장은 부영시 같은 악의 도시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곳은 거짓 선지자의 안식처일 뿐”이며 “저 주관을 곳”으로 매김된다. ‘나는 ‘시냇물’이라는 공간에 대한 부영시 다수의 사람들의 만류와 의혹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그 공간에 대한 ‘매혹’에 이끌린다. 결국 공포를 자아내는 ‘시냇물’의 실체는 ‘송어와 은어’의 동성애이다. 송어와 은어는 사랑했지만,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은어 때문에 괴로웠고, 동성애의 과거 전력 때문에 결국 파혼해서 다시 돌아온 은어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처녀막을 파괴하는 가학적인 성교”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동성애는 이성애적인 욕망과 별만 다를 것이 없는 사랑이었다. ‘나는 ‘시냇물’에서 우연히 만난 ‘송어’라는 여인에게 그들의 사랑을 들었지만 “부영시에 머무른 일주일 이 수수께끼”와 같았다. ‘공포’로 다가 온 동성애도 전혀 낯설지 않는 ‘나’ 자신과 닮은 동일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그것은 ‘나’에게 여전히 ‘신기루나 환영’일 뿐이며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것일 뿐이다.

박상우의 『붉은 달이 뜨는 풍경』에서는 ‘내가 간절한 바람처럼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남긴 ‘그녀’의 비밀을 ‘공포’의 시선으로 캐어낸다. ‘나’와의 사랑을 “수정 고드름”으로 표현했던 그 여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은 공포의 시선으로 일관한다. “잘못된 출발”로 “불길한 예감의 빛”을 지닌 채 “길이 열려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남자는 종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억의 암층에 깊이 파묻혀 있던 금기의 언어인 ‘동성애’는 이미 불온한 빛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일이 현실로 현현되는 공포의 과정으로 “은밀하게” 봐야 하는 공포를 자아내는 타자로 그려지고 있다. 혼자 살던 이웃집 여자와 엄마가 함께 야반도주 하던 날, ‘나’를 향해 “뒤 돌아보지 마, 제발 뒤돌아보지 마.”를 외쳤던 엄마의 억압적인 ‘금기’의 실체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실체가 바로 ‘동성애’이다. 오동나무 주변을 맴돌며 “미친년들, 더러운 년들”을 외치며 욕설과 침을 뱉어대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런 아버지를 보며 “도대체 오동나무는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라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그 잘못의 실체로 동성애는 그려진다. 엄마가 도망간 이후 다섯 번째의 낯선 여자를 맞이하여야 했던 아버지를 ‘변태’로 규정하고 아버지와의 연을 끊었던 ‘나’는 우려했던 공포를 체득한다. ‘그녀’가 머문다는 저수지 주변은 “저수지 수면으로 내려앉은 달빛이 잘 닦인 면경처럼 주변의 숲과 하늘의 정경을 환히 되비춰내고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의 세계”에서 깊은 밤 “알몸으로 저수지 주변을 맴도는 두 여자”의 모습을 보며 ‘나’는 탄식한다. “아홉 살부터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된 아이의 뇌리에 각인된 붉은 달의 전모였다. 단절과 고립의 상징”으로 다가온 ‘그녀들의 사랑’이 “알몸과 알몸, 그리고 마주 잡은 손, 갑작스럽게 세상에 붉은 기운이 충만해지는” 신비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깊은 밤, 알몸으로 저수지 주변을 맴도는 저 오동나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동성애는 여전히 현실에서 거부된 ‘괴물’들이 신비한 공

간에서 행해지는 “다른 길을 꿈꿀 수 없는 자리, 다른 길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단절과 고립의 상징으로 매김된다.

최윤, 『하나코는 없다』에서는 ‘나’가 학창시절 늘 함께 있고 친했지만 지금은 그들만의 암호인 ‘하나코’로만 불려져야 하는 ‘그녀’의 ‘비밀’ 즉 “수수께끼”의 실체를 캐어나는 과정에서 공포를 자아내는 ‘괴물’이 바로 ‘동성애’임을 그리고 있다.

“아무도 꼼꼼히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인정하기 싫은 취기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실들은 숨기고 싶은” 남자들의 횡포에 “어두움의 덩어리 쪽으로 사라진 그녀들”로 ‘그들’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것은 사라진 ‘그녀들’ 안의 하나인 ‘하나코’의 비밀인 것이다. 이제 10년 이상이 지난 서른 두 살이 된 ‘나’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는 ‘하나코’의 공포의 실체를 캐기 위해 “두려운” 맘으로 찾아 나선다. ‘우리’로부터 추방된 “함정이 많은 수수께끼처럼 점점 더 깊은 미로 투성이의 한 도시 속” 이탈리아 조그마한 도시에 산다는 ‘하나코’는 ‘나’나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함정이 많은 수수께끼”를 지닌 ‘괴물’도 “미로”도 아닌 여전히 침착하고 친절한 “나를 그렇게 몰라요”를 되묻는 그 시절의 ‘그녀’였다. ‘괴물’이 아닌 친숙한 ‘그녀’를 만난 ‘나’는 갑자기 “낮선 도시에서 지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걷는 낙망한 자의 자유”를 느끼듯 “미로투성이의 한 도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가끔 하나코의 “그렇게 날 몰라요?”라는 음성은 “유령의 목소리”로 ‘나’의 귓가에 울린다. 공포를 자아내는 동성애자 ‘하나코’는 있지만 “없다”로 추방된 채 “유령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보이는 실체로 타자인 동성애는 그려지고 있다.

‘그’가 출장여행에서 돌아오고 수년이 지난 어느날, 그 달의 잡지에서 ‘동양의 매력을 의자에 담은 한 쌍의 한국인 디자이너, 귀국 전야의 인터뷰’에서 두 여인이 담겨 있었다. 자신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하나코와 그

너 옆에 있는 그 여자” 그 기사에는 “두 여인에 대해 때로는 동업자, 때로는 동반자”라고 써 있었다. ‘그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추방한 ‘그녀들은 사회로 귀환한 친숙한 “동업자”“동반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사랑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닌 “미로투성이의 한 도시”에서만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녀들’로서 매김된다.

동성애는 공포를 자아내서 추방해야 하는 타자성을 내포하지만 그러한 공포를 일으키는 타자성이 내 안에 있다는 확인에서 동성애는 인정되어야 하는 성의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안에서는 단절과 고립된 ‘거부자’로서 타자화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3. 결론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성애 소재가 드러난 한국문학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당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다문화적 인식인 ‘인정’의 과정에서 동성애가 타자화되는 방식을 살필 수 있었다.

동성애자 아닌 성적 주체가 타자인 소수자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과정은 ‘연민, 혐오, 공포’의 시선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민/혐오·공포 = 수용/거부라는 이분항적 시선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시선이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적 시선’에 기반하여 ‘타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젝의 ‘거짓환상’이라는 저항적 시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환상 때문에 윤리적 이념은 추상적 보편성으로 전환하고 이는 곧 타자에 대한 폭력을 야기한다는 버틀러의 논의를 반영한다. 초점화자의 동일성 시선에 따라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위계질

서에 의한 배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소수자 동성애자는 ‘배반과 전복 그리고 추방’의 과정 속에서 ‘이교도, 가부장제 회귀로서의 도구화, 괴물’로 타자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여러 층위를 포함한다. 다문화주의에는 주류문화주변에 존재하는 하위 문화적 다양성, 특정 종교나 신념과 같이 지배문화가 거부하거나 실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다양성, 즉 동성애도 다문화주의 영역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문화적 사회에서 지배적인 ‘성문화’에 거부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타자인 ‘동성애’를 ‘누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여전히 근대사회에서 배제된 타자를 인정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근대사회가 지닌 견고한 벽을 향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 지젝과 버틀러의 도전적 비판의식은 90년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적 현상을 새롭게 모색하는 시발점을 제시하여 성찰하게 한다. 여전히 타자성을 거듭하는 소수자 동성애자를 향한 진정한 소통방식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1. 기본텍스트

- 강석경,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 『2001년 제8회 21세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도서출판 ISU, 2001.
- 박상우, 『붉은 달이 뜨는 풍경』, 『21세기 문학상 수상작품집』, 2000.
- 송경아, 『송어와 은어』, 1994.
- 신경숙, 『딸기밭』, 『딸기밭』, 문학과 지성사, 2000.
- 이웅준, 『이교도의 풍경』, 『내 여자친구의 장례식』, 문학동네, 1999.
- 전경린,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 마네킹 헤토르와 안드로마케』, 『물의 정거장』, 문학동네, 2003.
- 최윤, 『하나코는 없다』, 『1994년 한국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994.
- 하성란,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창작과 비평사, 2002.

2. 논문과 단행본

- 가야트리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 _____, 태혜숙 박미선 옮김, 『포스트 식민 이성비판 : 사라져가는 현재의 역사를 위하여』, 갈무리, 2005.
- 미셸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7.
- 미셸푸코, 박정자 역,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 Myers Tony,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에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5.
- 송현호, 『다문화 사회의 서사유형과 서사전력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44집, 현대소설학회, 2010, 171~200쪽.
- 수잔 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 슬라보에 지젝,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제』, 도서출판 b, 2008.
- 이성희,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동성애’고찰』, 『관악어문연구』 제30집, 2005, 12, 267~89쪽.
- 임옥희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도서출판 여이연, 2006.
- 임은희, 『탈주하는 성, 한국현대소설:1910~20년대 소설의 동성애적 모티프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2010, 231~57쪽.
-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2007.

-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성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 서동진,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1996.
- 제라르 쥬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제프리 왁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7.
- 조르주 깡길렌,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 호미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사, 2002.

Abstract

Multi- cultural recognition of homosexuality in the study appeared otherness

- The late 1990s - early 2000s, homosexuality motives In short stories

Im, Eun-Hee (Hanyang University)

In this paper, by the late 1990s, early 2000s, gay novel of the table to note the cultural discourse that has been noted with homosexuality and sexual identity a 'difference' you're considering coming out of a small number of subjects is that the gay community has been highlighted by. These multicultural era not protected by the state law or 'minority' is Badiou conceptualized in terms of a 'stranger' can be added to . The philosophical basis for contemporary cultural discourse, especially Taylor's "recognition" on the basis that when the politics of the minority groups 'recognition' of Korea is in the process of cultural awareness has been reflected with what appeared in the Korea Society 'as a homosexuality stranger' is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 Many minority and the 'recognition' to 'false' one may wish to consider Zizek's resistance to the point of is not the type of subject minorities, homosexuals 'recognize' the process 'pity , disgust, fear' could be classified as the eye . Pity / disgust , fear = acceptance / rejection of the eye can be considered a wake two minutes , but the eyes 'gaze fantastic subject's narcissism ever' based on the 'type' of Zizek in that it recognizes the "false illusion" resistance is red eyes can be come up with .

This is because the illusion of narcissism ever subject to switch to ethical ideals abstract universality of violence against others , which soon lead to a discussion of Butler reflects that . Narcissism ever performed by the subject judge and others to recognize themselves in the act to determine the type of the identification process of the subject 's just at this point and kill the otherness of the other murder he says. Thus, by focusing on the logic of the identity of the speaker normal / abnormal dichotomy of the hierarchy by a mechanism of exclusion by the homosexual minority 'betrayal and overthrow and exile' in the course of "Pagan, patriarchy as regression instrumentation, the monster as" to note tand that the analysis can be repeated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 임은희 537

(Key Words : homosexuality , multi-cultural awareness, otherness, a false illusion, compassion, fear, hate, the illusion of narcissism subject)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